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여름공동체 생활 기간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과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주일 공동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물질의 나눔'은 예배에 참여하실 때, 준비된 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8월 4일(월)부터 16일(토)까지 공동체 휴가기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다함께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31 호

2025년 8월 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2025년 어린이사랑방 여름공동체생활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권하민입니다. 제가 중국에 갈 때부터 여기 온 것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중국에 갈 때 마음이 살짝 속상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중국은 먹을거리도 다양하고 문화공간도 많고 친구들도 많아서 생각보다 잘 놀았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맛있는 건 감자 전분으로 만들어 바삭한 껌바로우(탕수육)였습니다. 중국의 좋은 점은 없는 게 없고 가격이 싸다는 것입니다. 수박은 한화로 약 4,000원, 아이스크림은 400원입니다. 기회 되면 놀러오세요. 입국하는 순간부터 '아, 내가 고향에 왔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뻔 했습니다. '이제 뭐하지' 하는 생각하기도 전에 할머니 댁에 도착하니 긴장이 풀리고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름공동체를 위해 교회에 오니, 고향에 왔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만난 분들도 정말 반가웠습니다. 계속 여기 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하온입니다. 여름공동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번에 가족들과 한국에 왔는데 마침 여름공동체라서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어린이로 여름공동체에 참여한 건 처음이었는데 오빠들이 너무 잘해줘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다같이 수영장에 갔는데 파도유수풀에서 다같이 손잡고 수영하면서 다닌 게 재밌었어요. 실외 유수풀에서는 제가 키 120cm가 안돼서 입장 못할 뻔 했는데, 오빠들이 잘 숨겨줘서 다행히 재밌게 탔어요. 여자는 지인선생님이랑 저밖에 없어서, 목욕탕에서 여유롭게 탕에서 놀기도 했어요. 교회에서는 이어람 선생님이랑 게임도 하고, 지인 선생님이랑 자랑대회도 재밌었어요. 교회 밥도 맛있고 좋아요. 오랜만에 언니오빠와 집사님, 목사님, 선생님과 만나서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힘든 점은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들 반갑게 맞아줘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용입니다. 저는 방학 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해볼게요. 요즘 집에서 숙제도 하고 티비도 보고 게임도 하고 공동식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씩 어디에 나가거나 가족끼리 놀러가기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는데 여름공동체 생활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하민, 하성, 하온이, 그리고 학교 친구들. 공동체답게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가

아니라 푸른꿈으로 갑니다. 마지막 어린이 사랑방 공동체생활이라고 생각하니 많이 아쉽긴 하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예준입니다. 제가 워낙 수영장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린이에서 이번에 재밌는 걸 많이 한다고 해서 마음이 끌려서 여름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집 만들기를 했는데, 다같이 종이로 만들어진 연약한 집을 만들었는데 친밀감도, 단합력도 올라갔습니다. 완성된 집을 색칠한 걸 보니 더 예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문 부분을 맡았는데 눈이 600개 달린 천사랑 날개가 6개 달린 천사를 경비원으로 그렸습니다.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싸우기도 했는데 이번에 집 지으면서 '누가 한 번 실수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위로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여름공동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온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방학에 여름공동체생활을 갔는데요. 한줄 평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색달랐다."입니다. 다른데는 성경공부하고 예배하고 그래야하는데 저희는 수영장 가잖아요. 그래서 색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이 어린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한다면, 만약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멋쟁이 때도 공동체 꼭 오고 싶습니다. 끝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민용입니다. 여름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첫 날에는 이어람 선생님과 레크리에이션을 했고, 둘째 날에는 수영장에 가고 영화관도 다녀오고, 공동체 훈련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총놀이를 하고 강강술래도 합니다. 그리고 집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하면서 여름공동체생활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린이가 적었는데, 다같이 하니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하성입니다. 처음에 중국을 갈 때, 많이 슬펐지만 중국에도 맛있는 음식이 많고, 기쁜 일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한국에 1년 만에 다시 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한국에 오니 다들 환영해서 좋았습니다. 나의 삶, 나의 일에서 어른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듣게 돼서 새롭고 재밌었습니다. 집 꾸미기 할 때 저는 집안을 꾸미는 역할이었는데, 다들 잘 만들었다고 해서 기뻐했습니다. 토요일은 강강술래를 해서 기쁘고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기쁜 하루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하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여름공동체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사랑방 친구들

한주간의 말씀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453, 114, 111 / 80

기도 :

성경 : 누가복음 2장

제목 :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

1-21 예수 탄생과 사회적 배경

해석: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성)이시다.

적용: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실임을 믿자.

22-40 어린 예수

해석: 사람은 성장해야 한다.

적용: 예수를 닮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신체적, 지적, 영적으로 성장하자.

41-52 소년 예수

해석: 순종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기 위한 방법이다.

적용: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자.

여름공동체생활을 마무리하며

첫 여름공동체생활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를 하며 한껏 즐거워 벅차올랐던 감정들이 쉬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충만한 요 며칠을 보냈습니다. 사랑방공동체라는 집 안에 살고 있어 참 좋습니다! <조민아 집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에, 우리를 집안사람으로 부르심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땀겨 흐르는 땀방울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니, 수고로움이 더 이상 수고롭지 않고 은혜와 기쁨을 누립니다. 가장 뜨거울 때뿐 아니라 어느 계절에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장성아 집사>

든든한 교육공동체 동지들과 함께 부지런히 즐겁게 일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과랑 커피, 아침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잘 드시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했습니다. <전향옥 집사>

재밌고 순조로운 일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너무나도 많은 손길이 숨어있다는 걸 다시 몸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로, 젊은이로, 교육공동체로 지낸 3박 4일이 정말 알찼고 그만큼 많은 것을 느꼈네요. <석지인 전도사>

오늘의 나의 편안함은 누군가의 수고로움에서 비롯된다는 걸 압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생활 중 다함께 땀을 흘리며 우리의 집을 가꾼 일이 기억에 오래 남을 거 같습니다. 같이 땀 흘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는 시간이 한 집안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누군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 알리고 싶고,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엔 함께 슬퍼하며 짐을 반절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예지 집사>

이번 여름공동체생활 동안 같이 참여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수시로 격려해 주시는 말씀들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모임에서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푸른꿈, 늘푸른, 젊은이사랑방의 청년들과 어른들이 같이 땀 흘리며 공동의 작은 미션들을 이루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랑방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위원장 서병옥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편 133 : 1-3
32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태복음 6 : 12-13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620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 : 1-4
아주 먼 옛날(50) 어린이사랑방
정재훈 목사
< 성찬식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220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10(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정연갑 이운순 / 봉헌위원 : 장지영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식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 안 식구로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서로를 돌보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신의 평생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 왔다 하더라도 그가 이겨낼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서로를 돌보심. 어려움 당한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이루는 방법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좋은 일입니다.

돌봄의 공동체. 내 이웃이 누구인가 물어보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사람들로써 하나님의 집 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병우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멋쟁이학교 >

김재준(j.ba) : 많은 것을 배웠다. 힘들었지만 친구들 덕분에 웃을 수 있었고 즐길 수 있었다. 내 생활에 기본부터 다시 배웠다. 식사 예절, 공부하는 법, 부모님을 친구를 선생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 사랑 받는 법 등,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함께하는 선생님, 친구들, Mrs.kim 가정 멋쟁이학교, 기도해주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 모두에게 감사한 여행이었다.

박성현ANDRWE :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많은 사랑을 느꼈고 한국에 돌아와서 미국에서 배우고 느낀 사랑을 다시 나누리라는 다짐을 한다. 영어 공부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공부한 것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공부한다. 함께 지낸 친구들과 지도해 주신 선생님, 섬겨주신 가정, 부모님들, 여행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박지호jake : 다른 문화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신앙과 공동체적인 삶이 전 세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쪽으로 선택을 했을 때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윤치후chihoo : 영어뿐만이 아닌, 공동체와 우리학년, 그리고 신앙의 대해 다시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다. 미국에서 본 교회와 대자연들 그리고 내가 만났던 선한 영향력들이 하나님의 계획안에 내가 있다는 확신을 들게 해주었고 이 경험이 앞으로도 큰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여행 동안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과 우리학년 그리고 주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수환hwan : 사실 영어보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많이 배우게 되었다. 상대를 배려하고, 나누고, 도와주고 진짜 가족과 같이 우리학년이 앞으로 실천해야 할 모습들을 보고 왔기에 더욱더 하나되는 학년을 기대하며 여행을 마칠수 있었고 앞으로 미국에 가게 될 후배들도 하나 됨을 느끼길 바란다.

배움과 가르침

임재경kai :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내 주제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한없이 작아진 나를 느끼면서 세상은 정말로 넓구나 싶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서부를 벗어나지 못했다니 땅이 너무 넓다. 넓은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해외문화체험이라는 여행의 목적을 제대로 지킨 것 같다. 솔직히 너무 아쉽다. 조금이라도 많이 즐기고 노력할 걸 싶다.

정아인ahin : 10주라는 길고도 짧은 여행을 다녀왔다. 작은 의미로든 큰 의미로든 학년의 리더로서 다녀오는 여행이었다는 것이 특별했다. 어려운 듯 즐거운 미국 생활 속에서 학년의 강점을 볼 수 있어 감사했고, 약점을 볼 수 있어 감사했다. 한국에서의 약점이 미국에서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해외문화체험이라 불리는 이름으로 미국이라는 큰 땅에 나의 미국 집을 만들고 돌아왔다.

최시원siwon : 미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다양한 문화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며 많이 배운 것 같다.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도 많이 쌓은 것 같다.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Mr. Kim 가정, 학교,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하다.

최율yul :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10주동안 생활 속에서 배운 예절부터 Mrs.Kim의 instruction까지 나를 돌아보고, 배우고, 깨닫는 게 많은 시간이었다. 또, 하나의 그룹, FAMILY 라는 이름으로 서로 도우며 우리 학년이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최정원joanne: 알찬 배움의 10주를 보내고 왔다 학년과 같이 생활하면서 본 강점, 약점 또 정말 어디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귀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학년 모두가 공유 할 수 있는 추억들이 점 점 쌓여감을 느꼈고 이런 부분들이 MrS.Kim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진정한 Family라는 느낌을 받았다 여행 차 안에서 창조론 강의를 들으며 개년들을 보러 다녔다.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나에게 선물해주신 하나님 여행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엄마들도 고3 동창

지난 7월 말, 진의 반 엄마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혜화동에서 1박 2일 동안 식사도 함께하고, 뮤지컬 “다시, 동물원”을 관람한 뒤 숙소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오랜만에 쉼과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상과 가족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은혜였는지요.

지난 해 고3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나며, 우리는 자녀들의 진로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정보를 나누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합격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서로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했고,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졸업한 아이들은 여전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후 함께 모여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엄마들에게도 만남과 나눔의 시간이 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 후 여러 가지 걱정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은 더 단단한 신앙과 깊은 우정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감사가 됩니다.

올해는 종합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엄마들이 함께 주일마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배 후 밭으로 향해 흙을 만지고 작물을 수확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땅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박하와 바질, 고추와 가지를 함께 키우며 웃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아이들 덕분에 엄마들이 다시 모이고, 함께 웃고, 삶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기도하며 또 하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들아, 고맙고 축복해!

디아코니아사랑방 저경하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67장, 331장, 370장

성 경 : 시편 33편

말 씬 : 주님을 기다립니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기후 위기 속의 선교>

극단적인 기후 현상으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선교지에 적절한 지원과 보호가 이뤄지도록.

또한,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적극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수해를 입은 공동체들>

수해를 입은 민들레 공동체의 수해 복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이 잘 지원될 수 있기를 위해.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여름공동체생활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공동체생활을 진행하는 교역자들과 교육 공동체 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주초에는 여름공동체생활을 맞아 사랑방 식구들이 머물 숙소 마련을 위해 온 집안을 청소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생활을 준비했습니다. 제초작업을 비롯해 주변 정리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름공동체생활이 시작되면서는 각 가정으로 배정된 반가운 식구들과 함께 뜻깊은 밤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시간으로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고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생활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